

道-시군, 전북 발전 ‘연대와 상생’ 한목소리

민선8기 제6차 정책협의회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공조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논의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민선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정현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정의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 주요정책인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2026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각 시군과의 정책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월 전주가 국내 개최지로 선정된 하계올림픽에 대해 참석자들은 세계와의 경쟁을 위한 단합된 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예산과 공약사업 반영이 전북 도정 및 시군의 현안을 해결할 적기임을 공유하며, 정책적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시군 우수정책 사례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 전북도는 지난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민선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갖고 김관영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정 핵심과제와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공유 시간도 마련됐다.

정읍시는 '3개년 도심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과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발표했고, 완주군은 '산단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조식 제공과 작업복 세탁지원의 성과를 공유하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전 시군

에 전파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 우수사례를 통해 실질적 행정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사랑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

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전북사랑도민제는 전북자치도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임 유도와 할인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와 시군 간 상호 홍보, 상호 기부,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 정치권 ‘전성시대’ 국회 요직·입각 잇따라

국회 법사·예결·환노위원장
외교·국방·통일장관 전북 인사

이재명 대통령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외교 국방 통일 등 3개 부처 장관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전북 정치권 전성시대'를 맞았다.

국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인법사위원회장에 4선인 이춘석 의원을, 국회 다수당 뒤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3선인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꽃 보직으로 알려진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장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장(안호영)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전북 국회의원은 정원 300명 중 10명으로 3%에 불과하지만 상임특별위원장은 18개 중 3명으로 16%에 이르고 있다.

또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안규백 의원이 국방장관,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 및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고향인 전북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안규백 의원은 5.16 군사구대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는 등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입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이 후보를 지원한 조국혁신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국무위원 선임설이 나오면서 전북출신 조국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전북출신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호남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김영목 기자

道, 비자정책에 현장 목소리 담는다

온라인 창구로 제안 접수
법무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

전북자치도가 외국인의 정착과 유입을 돕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그간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외국인 관련 제도에 대해 기업과 유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창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과 '전북외국인포털(myjb.or.kr)' 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됐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제 분석을 실시한 뒤, 타당

한 내용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비자 관련 제안은 외국민국제정책과에서 직접 전달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는 관련 부처와 협의 체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안이 조사를 통해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되면 제안자에게 심의결과와 지침개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채널구축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시도"라며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전 과정에 현장의 참여가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법무부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토대로 지난 3월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전략 거버넌스 출범

정책협의회 킷오프 회의 개최
12개 분야 구성 구체화 착수
도·시·연구원 협업체계 가동

전북자치도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정책협의회' 킷오프 회의를 열고, 유치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무형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IOC 심사 대응 전략을 뒷받침할 정책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경기시설, 수송(SOC), 숙박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연구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의 분과장인 도 실국장장과 전주시 정책

관계자,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운영계획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12개 분과별 주요 역할과 과제 정립 △올림픽 유치 전략과 지역 정책 간 연계 방안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앞으로 각 분과별로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점검하며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킷오프 회의는 전북과 전주시가 보유한 지역 인프라와 정책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질적 실행전략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여행

전북 장수 누리파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장수누리파크 | 063-352-5660

NAVER 장수군 검색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진 아티스트 발굴

7월 3일까지 전통음악 기반 ‘소리프론티어’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가 한국 전통음악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2025 소리프론티어’ 참가자를 오는 7월 3일 오후 3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소리축제 대표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총 43개 팀을 선정해 말레이시아 페낭 재즈페스티벌, 일본 스키야키미츠 더 월드 등 해외 주요 무대에 소개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올해 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의 전통 장르

대표 축제로 선정돼 2025년부터 국내 유일의 전통음악 유통 플랫폼 ‘소리 NEXT’를 시작한다.

이와 연계해 ‘소리프론티어’는 창작자와 음악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국내외 전통음악의 시장 진출 방법 도모 등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 소리프론티어’의 모집 대상은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음악 단체다.

고유의 레퍼토리로 60분 이상 무대 공연(야외)이 가능한 창작자, 국내외 음악 시장 진출 의지가 뚜렷한 창작자, 국악(전통음악)과의 단순 합주 형태를 지양하는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쇼케이스에서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예정된 해외 쇼케이스에 초청되며 항공과 숙박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한국 전통음악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2025 소리프론티어’ 참가자를 오는 7월 3일 오후 3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소리프론티어는 단순한 경연 형태가 아니라 창작자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악의 실험과 예술적

다양성을 가진 창작자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음악을 통해 한국의 멋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최대 35만원 평생학습 지원

6월 30일~7월 11일까지
디지털·노인 분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부터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6월 6일까지 진행했던 1차 접수에서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많은 신청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 총 2,620명이 선정돼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2차 접수는 디지털(30세 이상) 및 노인(65세 이상) 분야를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

주하는 성인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우선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권 지원대상선정은 자격 확인 절차와 전산 추첨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21일에 개별 문자 등으로 결과가 안내된다.

신청은 전북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도민에게는 이용권 카드(NH농협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며,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강좌의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서난이 도의원, 고용안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

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이임식

정웅 사무처장 등 공로패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임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

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가든형 테마파크’ 조성 본격화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간지원단 현장 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새만금 관광개발의 구체적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가든형 테마파크 조성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맹그로브 생태숲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동시에 갖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환경생태단지 1단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생태용지 2단계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2단계 중 2-1단계 사업은 관광레저용지 인근 3.57㎢ 부지에 국비 2,288억 원을 투입, 기후대응숲, 조류서식지, 국제연구·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든형 테마파크를 새만금 선도 콘텐츠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K-컬처, 콘텐츠 산업 등과 융합해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갖춘 전략 거점으로 키우는 구상이 중점 논의됐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든형 테마파크 모델 구체화,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기 개발, 투자여

건 개선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원의 행정여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도소방본부, 금마119안전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채담 건축사사무소 작품 최종 선정·내년 말 준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금마119안전센터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채담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역사문화환경 특별 보존지구 내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건축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공모에는 총 8개 업체가 참여해 높은

수준의 설계안을 제시했으며, 심사는 건축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당선작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인근 미륵사지의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24시간 소방출동을 위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충실히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마119안전센터는 연면적 769㎡,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금마면 일대의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센터로서, 신속한 재난 대응과 도민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금마119안전센터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설계안이 나왔다”며 “여사도시 익산의 품격에 걸맞은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앞으로도 노후 소방청사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어린 주꾸미 25만 마리 무상 방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도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어린 주꾸미’ 2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방류되는 어린 주꾸미는 전장 1cm 크기로, 5월 서해 연안에서 포획한 건강한 암컷 주꾸미를 인공 산란 유도 후 부화시킨 개체들이다.

이번 방류는 서식 환경에 적합한 연안에 이뤄지며, 어린 주꾸미는 먹이활동을 하며 겨울을 지낸 뒤 내년 봄 산란을 통해 자원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온열질환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충분한
수분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



햇볕 장시간
노출 피함



폭염 예보시
주변 노인분들의
분들의 안부확인



전주시, 펀드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 키운다

펀드 운용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기업 지속성장 12억 이상 투자

전주시가 펀드 운용사들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27일 펀드 운용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김현태)과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임팩트 투자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라이콘 펀드 공모 선정에 따른 것이다.

시와 ㈜엠와이소셜컴퍼니,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2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투·융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라이콘 펀드에 1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창의·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투자가 이뤄져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약기관들과 협력해 전략 투자로 기업을 육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27일 펀드 운용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국민연금,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 지원 확대

임직원 기금 5,292만원 전달
2012년부터 5억4천 누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저소득층 장애아동 위한 재활치료비 5,292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아)에 지난 27일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해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한국장애인부모회(고선순 회장)를 통해 추천받은 장애아동 21명에게 1년 동안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이날까지 총 222명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5억 4천만 원의 재활치료비를 후원했다.

후원금은 재활보조기구 구매,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보호자에게 방임되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 비용을 지급하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202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를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위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 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후원이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이라는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 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올해 60억 이상 출연 예정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27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에 20억1800만원을 임의 출연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7일 3high(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low(저성장) 지속되는 경제위기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에 20억1800만원을 임의 출연했다.

이번 출연은 올해 상반기 특별출연금 36억5천만원에 이은 임의출연금으로 농협은행은 하반기 출연금을 포함하면,

올해 모두 60억원 이상을 출연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출연금은 대내외적 불안정한 여건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20년 이후에만 총 210여억원을 출연해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지원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숨을 덜 수 있도록, 문턱 낮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도록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농협은행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1800만원을 임의 출연했다. <사진=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

건설산업 노동 현안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정 논의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소재철)는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각 단체간 현안 공유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석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설산업내 노동분야 공통 현안과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SOC예산 감소, 투자심리 위축 등 현재 건설경기 침체는 요인이 복합적인데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커 건설분야 연관산업까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나 금리인하 같은 단기 부양책에만 의존하기보다,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로서 변하지 않으면 위기타출은 없다는 각오로 각단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스스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지역 건설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

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특임감사인’ 17명 위촉

감사 유경험자 전문가 구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6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특임감사인 위촉식’을 열었다.

특임감사인 제도는 감사실 근무 경력이 있는 전출 감사인들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 그룹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청렴 및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공사 감사실은 전출감사인 중 17명을 특임감사인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실무경험과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임감사인 △내부변호인 지원을 통한 피감사인 권익 보호 △감사인 권한

남용 등 감사윤리 감시 △감사 사안별 자체감사 참여 △감사 자문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는 “특임감사인은 감사 실무를 경험한 내부 전문가로서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감사 활동으로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감사실은 정기 교육과 감사 활동 사례 공유, 성과 환류 등을 통해 특임감사인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기공사협회 전북, 기술자문위 개최



국제표준회의의 홍보 등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26일 덕진현에서 제29차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국경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경수 위원장, 이재수 회장, 최병인 부회장, 박용덕 전기산업연구원 이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기술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기공사 업계의 심근박스인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사장 이형주)의 현황과 11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IEC TC112 국제표준회의’(약 33개국 참가예정)를 설명한 뒤, 학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국경수 위원장은 “바쁜신 중에도 전기계 네트워크 구축에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기계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수 회장은 “지난 5.17 개최된 전북 전기인 등반대회에 적극 참여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자주 만나 맘터놓고 얘기하면서 다른 업종보다 더욱 단단하게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회는 2003년 산·학·관 전기분야 전문가(도내 대학교 전기관련 교수 9인 및 유관기관 전기분야 9인)으로 구성된 협회 자문기구이다.

/김은지 기자

기업사랑도민회 AI활용 홍보전략 강연



리더스 2차 포럼…실습 병행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가 AI 시대에 기업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해 생성형 AI활용 및 홍보전략에 대한 리더스 2차 포럼을 지난 26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AI 전문강사인 최재용 원장이 강사로 나와 AI 시대에 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실제 AI를 활용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실습과 강연을 병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원장은 AI 시대는 아이디어와 정보가 자금만큼이나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하고, 챗GPT와 같은

구글기반 인공지능 무료컨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유익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홍보물 제작에 큰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없어 홍보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AI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홍보용 카피 제작, 동영상 제작, 로고송 제작도 손쉽게 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참석자들과 실습을 통해 개별기업의 홍보용 카피와 로고송을 직접 제작, 시연했다.

윤방섭 회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I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무주 서면마을 방문 봉사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홍종기)와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은 지난 27일 무주군 무주읍 관내 ‘서면마을’을 찾으며 노인정을 찾아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마을 희망동행’은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업체 조합원, 영농지원센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영농회와 일손돕기를 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사업이다.



농협자산관리회사 홍종기 전북지사는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마을 활력 부여를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전환

“학생중심 미래교육 차질 없이 실행”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의 체제로 전환됐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7일 “교육감의 직위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나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전략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권한



전북교육청은 지난 27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진=전북교육청>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력 신장, 책임 교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행정자료 종이 줄이고 편의 높였다

e-book 발행·인쇄 부수 축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행정자료’를 친환경 방식으로 발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줄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발간하는 ‘교육행정자료’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주요 행정 데이터를 모은 종합자료다.

특히 올해부터는 e-book으로도 발행해 편리성을 높이고, ‘2025 간추린 교육행정자료 검색기’를 처음 도입해 복잡한 교육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기를 활용해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도민들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전북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ESG 실천 일환으로 올해 책은 일반 글꼴 대비 35%의 토너를 절약할 수 있는 ‘나눔에코제’를 사용해 제작했다.

발간 부수도 전년도 500부에서 309부로 38.2%로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했다.

교육행정자료 책자는 기관별로 배부하며, e-book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간추린 교육행정자료 검색기 도입으로 교육행정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글로벌 전문가와 ‘학생 경력 설계’

호주아시아글로벌법조인참여 지속가능한커리어전략제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세계 법조계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설계 전략을 제시하는 명사·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전북대 학생취업진로처 취업진로지원과는 지난 26일 오후 재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커리어 전략과 성공적인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한 제4차 명사·전문가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는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약 중인 법조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의 경력 관리와 진로 설정 노하우를 공유



했다.

이날 전 호주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셉 카탄자리티(Joseph Catanzariti) 호주 College of Law 학장

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커리어 전략’을, 고철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前 기재부·금융위 고위공직자)가 ‘커리어 성공의 의미와 설계 방법’을 주제

/최성민 기자



예수대학교-국가응급재난교육원 상호교류협력 체결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국가응급재난교육원과 상호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기본재난인명구조(Basic Disaster Life Support, BDLS)’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교육·봉사·연구 및 취업지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재난·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위상 제고에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BDLS 교육 프로그램은 프리치드를 102호에서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4학년 재학생 40명과 교수진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재난 대응의 기본 개념과 구조 활동 절차, 실무 중심 사례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현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참여 학생들은 이론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명 구조 기술과 위기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채윤정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여름철 폭염 현장안전·보건 점검 실시

고령종사자다수근무학교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식종사자 수가 많은 학교 20개교, 고령의 미화원 및 시설관리원이 근무하는 학교 30개교 등 총 50개교를 선정해 7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해 온열질

환 예방 점검표를 기준으로 관련 항목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 △적정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적정성 여부 △작업장 체감온도 확인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 및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무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급식실, 외부 시설 작업장 등 고위험 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RISE 대학상생사업 사업비 약87억 확보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전북 글로벌대학30 대학 상생사업에 선정돼 약 8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 확보에 따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새만금 특화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창의인재 및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립군산대는 에너지, 해양·수산·식품, 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양헬니스 및

농생명바이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전북 서해권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융합형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및 김제 백구 산업단지와 연계한 수산식품 가공수출,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전기특장차 분야 맞춤형 인재를 육성, 미래 먹거리로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전형 고등교육 거점으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창업·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에너지 절약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왜 에너지를 절약 해야 할까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 지구온난화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것

01

안쓰는 콘센트는 뽑아요

02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요

03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 해요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마을회관 준공 기념 행사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주민들이 지난 27일 군산시·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출향인을 초청하여 개최한 주민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한바탕 신나는 품물로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주민들과 손님들은 흥겨운 가락에 어깨춤을 추면서 흥을 돋웠고, 이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준공 고사가 진행됐다.

고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박병환 두리도 이장은 “평생 살아온 두리도 주민을 하나로 이어줄 마을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기쁘기 한이 없다”라면서 “두리도가 살맛 나는 섬이 되어 가는 걸 두리도 출향인들과 초청객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줘 더욱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여름방학 체험 풍성

백제왕도 익산시가 특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백제랑 놀자’ 퀴즈쇼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역사탐험대’와 ‘귀족휴가’가 진행된다.

역사탐험대와 귀족휴가 참여 신청은 7월 14~20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모녀의하루 in 군산도’ 접수 3시간 만에 조기 마감

군산시가 전국의 모녀를 대상으로 기획한 1일 단체(매끼지) 여행 프로그램 ‘모녀의 하루 in 군산-K관광심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8일 열린 ‘모녀의 하루 in 군산’은 엄마와 딸 모녀기간이 함께 군산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지역 음식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감성 힐링 여행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선착순 모집은 불과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심지어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다음 일정을 문의하는 사례까지 이어져 프로그램의 높은 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신청자 총 405명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 신청자가 125명(31%)으로 나타나 최다 신청지역의 위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열기에 보답하기 위해 시 역시 올해는 콘텐츠와 체험 종류에 따라 아일랜드 코스와 레트로 코스 2개의 테마로 변화를 꾀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일정은 K-관광심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말도, 명도, 방축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유람선 관광으로 막을 올렸다. 한 참가자는 “작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어렵게 기회를 놓쳤는데, 올해는 신청에 성공해 엄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행복한 군산 여행이 되게 도와주신 군산시에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월평균 44만명 돌파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 축제·체험형 콘텐츠 효과

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 796명(월 평균 44만 6932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24년 1~4분기 누적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

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역의 실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읍시의 생활인구 증가 배경에는 10월 구절초 꽃축제와 정읍사문화제, 가을철 내장산 단풍 관광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축제와 체험형 콘텐츠가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고, 이는 곧 생활인구 확대에 이어졌다.

시에서는 사계절 머무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장호·월영습지·솔티슈 등 자연생태 공간 △천사히어로즈·구절초 쉼터와이어·문화광장 순환열차 등 체험형 관광 △용산호 수상 테크길·내장산 자연휴양림 같은 힐링 공간 △정읍사 달빛사랑 숲·정읍천 미로분수 등 도심 휴식공간 마련에 집중해왔다.

이학수 시장은 “사계절 체류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 7건 선정

민관정책T/F팀 출범

군산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협업으로 정책을 공동 기획 설계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정책 장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7일 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우수 제안 시민과 관계 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정책 T/F팀을 출범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는 군산시민 대상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 제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1건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 제안 중 실무 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최용현) △군산 시간저축은행(김재희) △1.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2.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수 있는 군산(원영화) △도시 근린공원 정원과 및 인공폭포 설치(나승택) △동네 소꿉친구(동네육아카페)(이연지) △“성장캠프”: 9시까지 놀자!”(백지민) △안전한 우리 동네공원 이름표 달아주기

(나상수) 까지 총 7건이다.

정책장터 토론회에서는 7건의 우수 제안을 한 시민들이 직접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관계 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와 관계 법령 및 예산 등의 검토를 통해 거쳐 제안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 시청 발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신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제안이 정책화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호응’

상반기 409세대 신청

익산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이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 접수 결과, 총 409세대가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가 당초 예상한 250세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401세대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신청 가구 중 익산시 기준 거주 세대는 74%,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세대는 26%로 실제적인 인구 유입 효과

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청 가구의 72%가 기혼가구로, 지역 내 정착 의지와 출산·양육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임 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

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에 대한 꾸준한 호응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연중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약 7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 기간을 강화했다. 특히 신청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준비 서류를 7월부터 기존 10여 개에서 5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많은 시민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고 계산 만큼,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신청 절차도 더 간편하게 개선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바이오 창업기업 간담회…입주기업 전폭 지원

지식산업센터 60실 입주공간

정읍시가 바이오 창업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충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코워킹 스페이스·창업보육동 입주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읍시 바이오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회계·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소개되며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최근 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고, 60실 규모의 입주공



정읍시는 지난 26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정읍시>

간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단지 부지 확장을 통해 우량 바이오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복합문화센터 내에 조성했다. 이를 시작으로 ‘공유사무실 → 연구기관 보육동 → 지식산업센터 →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은 바이오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입주공간, 투자연계, 기술이전까지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이 바이오 기업의 최적 입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선정

참전유공자 정책 성과 인정

익산시는 지난 2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선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생활 밀착형 보훈 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 참전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수당 수준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며 참전수당 상향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2024년 2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는 참전수당을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도적 행정은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여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그분들의 공헌을 오래 기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예우 문화를 일상에 녹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구직단념 청년들 도전에 날개를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익산시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20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8명이 수료하고 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 컨설

팅과 교육을 강화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아울러 ‘취업워크숍’과 ‘청년도전 네트워킹 데이’ 등 체험형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해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열린 ‘제2차 청년지원기관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지역 대학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창업 등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와 심리 안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교육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합리화 추진을 위한 직원 대상 에너지 교육’이 지난 27일 옥산면 힐빙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육 대상은 각 부서의 에너지 지킴이로 지정된 공무원 약 60명으로 현재 부서 내에서 에너지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춰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군산대 풍력에너지학과 이대용 교수가 맡아 △에너지 이용 합리화의 기본 개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등을 전달했으며, 특히 풍력발전 산업 기술 관련 토론이 중점적으로 오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공유해, 참석자들 모두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식

정읍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들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본격화한다.

정읍시는 지난 27일 청년지원센터에서 ‘2025년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1기)’에 선발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청년 7명을 대상으로 9회, 총 1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전략 수립, 마케팅, 세무회계

등 창업에 필수적인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수료한 7명 전원에게 앞으로 3년간 연 500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맞춤형 기업지원, 성과 ‘톡톡’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질 효과 융자 37억 등 기업 자금 지원 통근버스·기숙사 근로자 복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경영 자금 지원부터 근로자 복지, 판로 개척, 행정 소통까지 기업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운영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상반기 동안 14개 기업에 총 37억 8천만 원의 융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한시적 상향 조정하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 연장도록

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오는 7월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을 신청받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하루 평균 223명이 이용 중인 통근버스 4개 노선 운행으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했으며, 19개 기업에 2억 원 규모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뒷받침했다.

또한, 전입정착금과 애양장려금도 각각 25개 기업, 17개 기업에 지급했다.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도 눈에 띈다. 기숙사와 북카페, 체력단련실, 식당 등 근로자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활발히 이어졌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10개 기업, 2천만 원), 온라인 플랫폼 프로모션(5천만 원), 수출사다리 사업(12개 기업, 6천5백만 원) 등 다각적인 판로 개척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도 남원시의 강점으로 꼽힌다. ‘1일 1기업 방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130여 개 기업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며, 상반기 동안 접수된 200여 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미래 유망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도 마무리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분양과 투자 유치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독사 예방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만 40~60세 사회적으로립가구 조기 발굴 선제적 복지 제공

완주군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까지 2개월 동안 관내 만 40세~60세 취약계층 1인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및

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조사대상은 건보료 체납, 월세취약가구, 단전, 단수 등 행복e을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만 40~60세 1인가구 6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주민생활조사단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는 복지부 고독사 위험

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군으로 판정된 대상자에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확인 등을 하는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민 총 22개 항목 시민안전보험 보장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진단위로금 신설 3년내 청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총 22개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해 2025년 5월말 기준 총1,365건 약 12억 2천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2023년과 2024년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은 이 기간만 총 1,041건 약 5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장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 전액이 일직 소진돼 현재는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항목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대체 계약했고, 보장항목을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구분	구분	구분
2025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025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025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 상해의료비	2. 상해의료비	3. 상해의료비
4. 상해의료비	5. 상해의료비	6. 상해의료비
7. 상해의료비	8. 상해의료비	9. 상해의료비
10. 상해의료비	11. 상해의료비	12. 상해의료비
13. 상해의료비	14. 상해의료비	15. 상해의료비
16. 상해의료비	17. 상해의료비	18. 상해의료비
19. 상해의료비	20. 상해의료비	21. 상해의료비
22. 상해의료비	23. 상해의료비	24. 상해의료비

남원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22개로 확대한다. <사진=남원시>

되도록 개선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상해의료비 대비 보장 한도액이 없으며 22개 항목 모두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보장이 가능하며,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4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금과면서 지역 주민 등 참여 삼계탕 등 대접·문화 공연

순창군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함께 전북,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주최하고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가 주관한 행사로, 군민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340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70명의 군민들에게는 삼계



지난 26일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함께 전북,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속에 성료됐다. <사진=순창군>

탕과 찰밥, 계절 반찬, 과일 등으로 구성된 푸짐한 한 끼 식사가 제공됐다.

아울러, 본격적인 식사 전에는 네일아트, 수지집, 부채 만들기 등의 전문 봉사 부스와 난타, 하모니카, 민요 공연 등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금과면 봉사회를 포함한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성을 다했으며, 전문 봉사단과 문화공연팀은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동상 원신마을, 삼대 귀촌 가족 탄생

귀촌가정 아기 백일 잔치 농촌유학 인연…부모도 귀촌

완주군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센터장 임진희)에서 지난 26일 동상면 원신마을(이장 김호성) 귀촌 귀촌 환영 행사가 열렸다.

주인공은 지난 3월, 적막한 산골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줘 화제가 된 박태형(42)·가예나(28)씨 부부의 부모님이다. 환영 행사에는 자녀 성품, 은광군 등 온 가족이 참석했다.

원신마을 주민들은 귀촌 가족들을 환영하고, 백일을 맞은 은광 군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예나 씨는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남편 박태형 씨를 만나 동상면에 정착하게 된 지 5년이 되어간다. 이들은 동상면에 가정을 이루고

살던 중 올해 부모님까지 귀촌함으로써 귀촌 삼대를 이루게 됐다.

주민들은 삼계탕으로 점심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다.

임진희 센터장은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대가족형 농촌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며 “농촌 생활을 통해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가족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예나 씨가 근무하고 있는 동상면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현재 16명의 유학생이 입소해 있다. 이들은 7세부터 16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를 떠나 1년 이상 시골학교를 다니며 시골살이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동상초등학교 전교생의 70%인 15명이 농촌유학센터 소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폭염 취약 주민 찾아가는 건강관리 강화

독거노인 등에 전담간호사 방문 온열질환 응급대응·예방교육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 건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 활동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간호사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순창군 보건의료원 소속 33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독거노인 910명을 포함한 고위험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안부 전화를 비롯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물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인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을 설명하고, 증상 발생 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하면 피오리움 무료 입장

올해 기부자 대상 연말까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신규 개관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피오리움’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실감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으로, 한파우 아트밸리·광한루원 등과 연계한 남원시 대표 가족 체험형 관광지이며 입장료는 1만 2천원

이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은 현장에서 2025년 남원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내역(고향사랑e을 마이페이지, 기부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피오리움’ 무료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료입장 혜택은 기부금액 10만원 당 1명씩 적용되며, 예컨대 2025년에 남원에 20만원을 기부한 경우 동반 1명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제공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주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단열재·창호·보일러 교체와 방범시설, 주방·화장실 등 집수리를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대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한 건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해 신청한 32가구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14가구를 선정했다. 여기에 더해 잔여 물량에 따른 대상자 모집을 진행했고 추가 대상자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주택 구조 및 수선 가능 범위를 고려해 가구별 수선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추진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ESG 실천 시동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협약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공간 구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임직원 대상 ESG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비롯한 자원순환 실천은 친환경 공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전문강사 초빙 안전보건교육

순창군은 지난 26일 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군 소속 사업장 현업업무 근로자 33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간도 마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일터를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120만원봉사대 장마철 취약지역 집중 점검

남원시 120만원봉사대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취약지역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10일간 사전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학교, 관공지,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우수맨홀, 빗물받이 등 가장 기초적인 배수시설에 대해 살피며 낙엽 및 쓰레기 제거, 배수로에 유실된 토사 제거 등 기본적인 정비활동을 하며, 전문적인 배수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장마철 기간에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험이 많은 만큼, 사전점검과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생활환경성면협회 전북본부, 정읍시에 기부금 500만 원 전달

(사)한국생활환경성면협회 전북본부 한태문 본부장이 고향 정읍을 찾아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한태문 본부장은 지난 26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하며 정읍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정읍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은기업, 군산 저소득 청소년에 장학금 250만 원 기탁

나온2동 행정복지센터는 (유)대은기업이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미래드림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대은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며 “오늘 전달한 장학금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들, 김제시에 성금 500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7일,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7회 환경기초시설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체 대표들이 뜻을 모아 총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유니테크알앤디(대표 고안상), 신진유지건설(주)(대표 김인식), 리뉴어스(주)(대표 권지훈), 일도씨엔엠(유)(대표 최규연), ㈜전북엔비텍(대표 박동기)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지부, 6.25 추모제

전주군경묘지서 진행 “희생 잊지않겠습니다”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김영도)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국군, 경찰) 제16회 호국영령합동추모제를 지난 27일 전주시 군경묘지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장 및 보존단체장과 유족회원을 모시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가졌다.

35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와 헌화 및 분향이 진행된 뒤, 추념사가 이어졌다.

김영도 지부장, 임상규 부지사, 유정기 부교육감, 민규식 35사단 행정부사단장, 신경순 전북보훈지청장 등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호국전몰장병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주제로 영면을 기원하는 추념사를 했다.

/최준호 기자



정주가축약품, 정읍시에 장학금 300만원·쌀 1.4톤 기탁

확장이전 기념 나눔 실천

확장이전이라는 뜻깊은 출발을 지역과 함께 기념하고자 정주가축약품이 장학금과 쌀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유)정주가축약품(대표 민장용)은 27일 정읍시청에 장학금 300만원과 쌀 1400kg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준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원금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

성과 교육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된 쌀 1400kg은 푸드뱅크와 공유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정주가축약품의 나눔은 이웃의 식생활 안정에 온기를 더하고,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주가축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축산 기자재, 방역용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이번 확장이전을 통해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에도 더욱 힘을 방집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확장이전이라는 뜻깊은 출발을 지역과 함께 기념하고자 정주가축약품이 장학금과 쌀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사진=정읍시>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가 지난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한 기존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감룡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 기탁식에서 감룡장학회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감룡장학회의 기부 규모는 총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탁식에는 감룡장학회뿐만 아니라 마이산탐사 붓다봉사단도 함께 참여해, 1년간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시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 캄보디아 파견

익산시는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지역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등 16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봉사단은 이날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9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과 바탐방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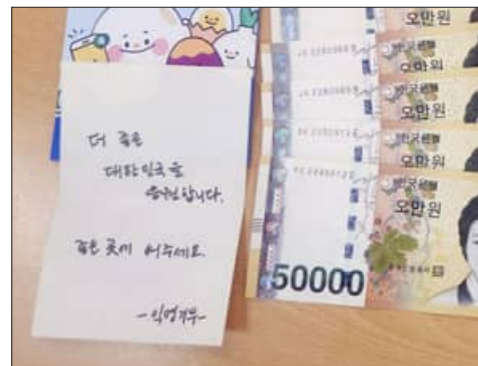
이번 봉사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 및 지역사회의 후원과

‘정수나눔실천회’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시설보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 필요한 도움을 전할 방침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감각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름도 없이 조용히 정읍에 다녀간 기부천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라는 손글씨 한 장과 함께 전해진 100만원의 기부금이 정읍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경,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내장상동 주민센터를 조용히 방문해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는 별다른 말 없이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좋은 곳에 써 주세요’라고 적힌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기부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어떠한 신원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리수납 코칭 매니저’ 수료식

남원시(시장 최경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7일 수료생과 강사, 관계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정리수납 코칭 매니저 창업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본 과정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1급·2급의 전문교육과 코칭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강사 2급 교육을 3개월 동안 진행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리수납 봉사활동과 사후관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니드비티플러스, 무주 청소년문화의집 마루 시공

㈜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가 무주군 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6천만 원 상당의 마루를 시공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마루 시공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니드비티플러스의 친환경 고급 마루 브랜드인 ‘올고다마루’를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 꿈틀방과 자치회의실, 사무실, 복도 등 총 294.4㎡ 면적에 전면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一事一言〉



기자실·기자단, 없앨 때 됐다

오태규
언론인

기자실과 기자단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힘이 막강했던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그 때는 기자들이 뭉치지 않으면 권력에 부담되는 사안을 취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자 한 마리에 맞서려고 열목랄 수십 마리가 스르륵을 짜고 뿔발질해야 하는 동물의 세계와 흡사한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언론사의 기자가 홀로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돼 온 학생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은 듣는 시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출입기자단이 때를 지어 서장실로 몰려가 요구해야 마지못해 신심 쓰듯 알려 주곤 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기자실과 기자단의 효능감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확 달라졌습니 다. 언론 환경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요 몇 년 새 기자단이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언론탄압에 저항하려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바 있습니다. 오히려 유석열 정권 때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응징으로 <문화방송>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도록 했지만, 대통령 기자실의 '1호 기자'들은 항의는커녕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권력의 횡포에 맞선다'라는 기자실과 기자단의 중요성 존립 논리가 파탄 났다는 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이미 언론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까지 가세하면서 언론사와 기자의 앞날이 1년 뒤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성 언론사와 기자의 독점 체제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소통 방식은 더욱 쌍방향·수평화·공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보를 발신하는 환경이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언론 환경이라면, 기자단·기자실로 대표 되는 주류 언론의 취재 방식은 '20세기의 유물'이라고 할 만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이름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포착한 이름짓기입니다. 이를 언론에 대입하면 '소비자 주권 언론'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 언론의 모습을 대표하는 '기자실-기자단 체제'는 구리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달리 고 있습니다. 출입처와 편을 먹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커녕 공급자 시각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언론환경 아래서 1만 3천여 개의 인터넷 매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 매체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출입처가 수두룩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법원 등 권력기관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생 매체가 검찰에 출입하면서 취재하려면 기자단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언론으로서도 '기자실-기자단 체제'가 밀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선별해 흘려준 독점 정보를 '단독' '특종'의 문패를 달아 크게 보도함으로써 클릭 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나 개인의 민원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을뿐더러 언론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익보다 폐해가 큰 기자실-기자단 체제를 혁파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권 초기야말로 바로 그 적기입니다.

그동안 기자실-기자단을 없애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독점에 온 기자실을 모든 기자가 사용하는 브리핑룸으로 바꾸고, 각 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전자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투명·공평하게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쉽게 이 방안은, 기득권 언론이 언론자유 탄압, 취재 방해라고 생떼를 쓰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다릅니다. 무엇보다 기자실-기자단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언론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큼니다. 인터넷 시대의 통폐합

상품 판매 방식이 보여주듯이, 수많은 작은 매체를 합치면 소수 기득권 매체를 압도할 정도로 언론 지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득권 언론의 반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도 비출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언론계의 공식 반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로 언론 분야에서 점수 따기가 매우 쉽습니다. 언론계를 속대발으로 만든 전임 대통령의 악행을 바로잡기만 해도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언론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시행하려다 실패한 취재 선진화 방안을 대통령실부터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 설치 건도 이런 큰 그림 속의 작은 조각이 돼야 더욱 빛날 것입니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주·완주 통합, 상호 존중의 공론화로 해법 찾자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엇그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청을 방문해 유희태 군수로부터 지역발전 현황과 과제 등을 보고받았으나, 당초 예정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통합 반대 주민들과 군의회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작년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도민과의 대화'가 좌절된 것이다.

이날 완주군청 앞은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 군의원들의 항의성 삭발, 피켓 시위, 격렬한 구호로 뒤덮였다. 김지사가 군청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문예회관으로 예정됐던 주민 간담회는 끝내 열리지 못하고 도지사는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대신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웅변한다.

특히 완주군의회의 공개적인 반대와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정치적, 정서적 반감이 누적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배경에서 김도지사의 일방적인 방문과 대화 시도는 충분한 준비와 사전 설득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통합의 찬반을 떠나, 주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통합 논의는 행정구역 개편 이상의 문제로, 각 지역의 정체성과 자존심,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얹혀 있다. 따라서 찬반 입장을 떠나 상대의 논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공론과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도지사가 간담회 자리

에서 밝힌 "통합 여부는 군민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또 "잔반 군민이 충분히 토론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타당하다.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삼아 과반이 되지 않으면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유희태 군수의 발언 역시 지역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은 그 내용이나 방식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방적인 설명회나 형식적인 청취가 아닌, 군민 개개인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도, 나아가 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론장 설계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통합 찬성 측 주민 역시 반대 측의 불안과 우려를 가법게 여겨선 안 된다. 통합이 가져올 인센티브와 행정효율의 기대 못지않게 지역 소멸이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도 실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주민들 또한 찬성 의견을 무조건 '외부 조작'이나 '정치 논리'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화의 복원'이며,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가 다시는 무산되지 않도록 찬반을 떠나 지역 전체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상호 존중의 공론화만이 해법이다.



오늘의시

감자밥 / 이 동 순

아지랑이
빈 들판에 가물거리면
싱그런 봄내음 가득한 냉이 국
상에 오르네
국사발 옆에는 사기 밥그릇
고슬고슬 지어진
좁쌀 밥 속에 이쁘게
박힌 것이 무엇인가
부엌 아궁이 솥 단지에
감자 깎아 놓으라는
엄마 목소리 들리네
여름해 일찍 떠오르고
나는 샷자리 깔고 앉아
순가락으로 박박

감자깍질 빗기네
오래 세월 감자깍질 빗기느라
반쯤 닳아있는 낱쇠 손가락
바닷가 아나네들
쌀도 없이 차려내는 아침 밥상
좁쌀 서너 줌 넣고
감자 섞어 지어내면
보기만 해도 그득해 보였던
고봉 감자밭이며
메우고추장 휘이 둘러
바가지에 척척 비벼내면
마당 귀 그늘에 앉아
썰기만 하던
하루하루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시집으로 개밥풀, 물의 노래 등이 있다. 민족서사시 흥벌도(전5부작10권)를 발간했다.

독자광장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이중적 시각, 망원경과 현미경



망원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농업 분야

에서 망원경적 사고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 자원의 불균형, 국제 곡물 가격의 급변이라는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IPCC는 기후위기로 수십 년 내에 전 인류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위성 관측 기술, 자동화된 농기계 등은 망원경처럼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시적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정밀농업을 통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으며, 이는 기술력 기반의 망원경적 전략이 성공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로는 농업의 탄



소중립 전략이나 식량 안보 강화 정책,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도 망원경적 시각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적 농업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의 현미경: 작게 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

반면,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농업에서의 현미경적 시각은 작물의 세포 단위 변화, 토양 미생물의 활동, 지역 농민의 생활양식과 기술 등 극히 세밀한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토양의 성질이나 기후 후 차이에 따라 생육 속도나 병해충 저항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수확량 감소

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정밀 분석, 맞춤형 품종 개발, 현장 실증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미경적 접근은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농업인의 '감각'은 때때로 어떤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의 경험과 현대 기술이 결합될 때, 진정한 '스마트 농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현미경적 사고는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책 수립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고랭지와 평야 지대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며, 농촌 마을의 사회적 연대망 및 문화적 특성까지도 고려되어야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

두 시선의 통합

망원경과 현미경, 이 두 시각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거시적 전략은 반드시 미시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하고, 미세한 혁신은 전체적인 비전 속에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농업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기계 보급, 작물 순환 재배 시스템 도입, 지역 순환 자원 활용 등 다양한 미시적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기술-현장 간의 삼각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이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넘어, 사람과 환경, 지역과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망원경처럼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와, 현미경처럼 깊이 들여다보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 두 시각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농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을 다시 바라보는 '두 개의 눈'. 그것이 우리가 현시점에서 꼭 가져야 할 시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인석 지방농업연구사

JBT 전북타임즈 Jeonbuk Times 2025년 6월 30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민선8기 8주년 정성주 시장

김제시, 대한민국 최고
투자유치 최적지 입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8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한 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다.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두산, 석경에이티 등 30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지평선·백구 제2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지정 등 매력적인 투자유치 기반 확충에 성공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평선·백구 제1산업단지 100% 성공 분양을 바탕으로 지평선·백구 제2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 대한민국 최고·최상의 투자유치 최적지로 각광받으며 과거 보지 못했던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이나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김제시를 조명해 본다.

두산 등 30개 기업, 7,812억원 역대 최고
산업단지 개발·핵심 인프라 조성

#지역에 부는 투자의 바람, 기회발전특구로 리드하는 김제의 미래

김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제정세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두산을 비롯한 30개 기업과 총 7,812억원 투자 및 1,364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해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지평선·백구 제2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북 최대 규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숙원된 전문 인력 적기 공급과 기업 투자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난 2월 연장 지정되어 지평선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등 안정적 경영 지원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

김제시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에 대응해 지난해 도내 최대 쿼터인 270명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역시 도내 최대 쿼터인 300명을 확보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기업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로 인정받아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미래산업 발전 핵심인프라 조성 단력

김제시는 IT, 콘텐츠, 스타트업 등 다채로운 산업의 창업과 성장 거점이 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연면적 8,000㎡, 지상 4층)신축 공사 관련하여 올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총사업비 1,337억원을 투입해 백구면 일원에 특장차 생산부터 인증·검사, 근로자 편의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전국 유일의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총 1,017억원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토목·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가 국내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에는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제2표준공장이 완공되어 전지전자·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유망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청년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김제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는 월촌리팩토리 사업, 순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백구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2026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28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전략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김제시가 상동동 일원에 조성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261억원, 88만 2천㎡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2025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통과했고 향후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확보될 약 420억 원 규모 국비는 지평선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활용되며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내 유해 물질 확산 방지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완충저류지 설치도 본격화되는 등 김제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전략산업 고도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지역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면서 “특히 최대 규모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낸 점은 민간의

신뢰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앞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밝은사회, 건강한 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복한 사회
전북타임스와 함께 만들어 나가요

